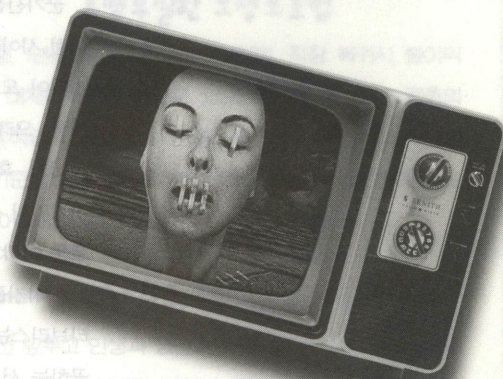


"성매매 피해여성 처벌조항 삭제하고
성매매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www.feminist.or.kr 여성해방연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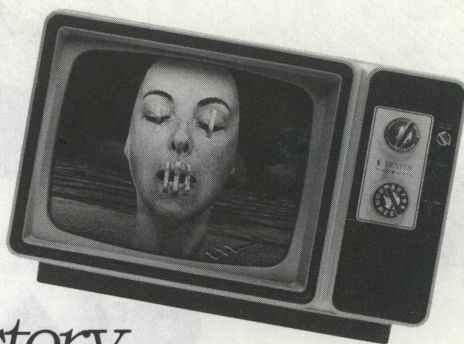
가부장적 권력 해체 · 여성해방 쟁취를 위한

여성해방연대

<여성해방연대> 소식지 준비5호 / 2002년 11월호 / 통권5호
2002년 11월 15일 발행 / 발행 · 편집 여성해방연대 / 디자인 소란 / www.feminist.or.kr
<서울> 마포구 공덕동 385-63 공덕빌딩 4층 TEL: 02)718-4535, womlib@orgio.net
<대전> 서구 삼천동 1020번지 3층 TEL: 042)486-0121, womlib-tj@orgio.net



- 1 소식지를 내며 그녀들의 이야기, Herstory
- 2 세상돌보기
- 3 지상강좌 성매매 '된' 자 성매매 '한' 자
- 5 기획 2002 대선
- 7 우리시대이여 여성문화이론연구소 '고정갑희'
- 9 즐거움만화방 순정만화다시보기
- 10 우리들의 그림일기 아직은 너무나 낮은 곳에 있는 우리들
- 11 요즘 어때? 여성주의적 양심에 따른 에이 병역거부자 '티랑'
- 12 여성사키워드 마초
- 13 특집 발로뛰는 여성해방연대 대전준비위원회
- 15 활동소식



그녀들의 이야기, Herstory



얼마 전 이화여대 총학생회의 자유게시판이 사이버 성폭력으로 도배되었다.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과 욕설들, 혹은 제법 점잖게 총학생회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글까지, 이번 사이버 테러는 이대 총학생회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지지를 선언한 데 대한 것이었다.

군가산점제, 월장. 군대에 대해서 여성들의 입장에서 말할 때마다 쏟아지는 이런 사이버 테러와 성폭력의 핵심은 지금까지 군대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야기되어 오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가 구성되었다는 데 있다. 군대에 대한 이야기들, 으레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말이야'로 시작되는 군대 다녀온 남성들의 이야기, 혹은 '안보를 위하여'가 되풀이되는 군대의 필요성에 대한 국가의 이야기만이 생산되고 유통되던 상황에서, 몇몇 여성들이 드디어 군대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시도했던 것이다.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말할 자유를許'하는 문제와는 다르다. 캐롤 타브리스는 '이야기란 우리 삶의 사건들을 조직하기 위해 단일화된 주제를 제공하는 서사'라고 말한다. 즉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삶을 판단하고 해석한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곧 권력이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남성들이 지니고 있던 군대에 대한 독점적 이야기 생산 권력에 감히 도전했던 것이다. 군대에 대한 여성들의 비판에 대해, 그것이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임에도, 사이버 테러에 가담한 남성들은 언제나 똑같은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그 남성들 역시, 단일화된 서사의 상징 속에 갇혀 있었다는 말과도 같다.

단일한 이야기란 존재할 수 없다. 같은 사건일지라도 보는 시각과 보는 이의 입장에 따라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러나 발화되는 모든 것이 사회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으며, 심지어 우리는 단일한 서사를 구성하는 데 익숙하다. 어떤 이야기가 지배적인 이야기가 되며, 어떤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서사로서 작동하는지, 누가 결정하는가. 왜 우리들은 지금껏 강요되었

"어떤 이야기가 유지되기 위해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큰 대가를 치려야 한다면, 그 이야기는 그릇된 것이다." - 캐롤 타브리스